

타이거JK·윤미래 부부, 재미동포단체 공로상 수상

가수 타이거JK·윤미래 부부가 미국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이 주는 '2024 트레일블레이저 어워드' 공로상을 받았다.



▲ '2024 트레일블레이저 어워드' 공로상을 받은 타이거JK(오른쪽)과 윤미래 부부. 사진=KACF

지난 24일 소속사 필굿뮤직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지난 17일 뉴욕에서 열린 KACF 행사에서 수상했다. KACF는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며 트레일블레이저 어워드는 매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두 사람은 행사에서 '에인절' (ANGEL), '난 널 위해', '몬스터' (MONSTER) 등을 열창했다.

타이거JK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상을 받으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했고, 평소 팬이던 많은 분을 만나 좋은 말씀을 듣게 돼 동기부여가 됐다"며 "저희가 앞으로 더 멋진 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래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수여한 상이라는 점에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우 유태오(2023), 배우 이정재(2022), 배우 윤여정(2021), 하이브 전(前) 윤석준 글로벌(Global) CEO(2020),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2019), 이미경 CJ그룹 부회장(2018)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퍼플키스, 월드투어 ... 6월 2일~14일 미국 공연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가 월드투어를 개최한다.



▲ 퍼플키스 월드투어 'PURPLE KISS 2024 BXX TOUR'(BXX) 포스터. 사진=RBW

지난 25일 소속사 RBW에 따르면, 퍼플키스는 이날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월드투어 '퍼플키스 2024 BXX 투어(PURPLE KISS 2024 BXX TOUR)' 포스터를 올렸다.

이들은 오는 6월 2일 오션사이드(OA)를 시작으로 미국 공연을 시작해 5일 라스베이거스(NV), 7일 솔트레이크시티(UT), 10일 새크라멘토(CA), 11일 산호세(CA), 13일 포틀랜드(OR), 14일 시애틀(WA)을 거쳐 캐나다 밴쿠버, 에드먼턴, 캘거리, 리자이나, 위니펙,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캘리팩스, 그리고 일본 오사카, 가나가와까지 총 18개 도시에서 투어를 7월 20일까지 이어간다.

'BXX'는 퍼플키스가 지난달 발매한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과 동명이다. 'BXX'는 '베스트 프렌즈 포에버(Best Friends Forever)'의 줄임말인 'BFF'를 XX(여성 염색제)로 변환한 형태다. 우정을 넘어선 여섯 멤버의 끈끈한 의리를 나타낸다. 퍼플키스는 힙한 빌런으로 변신해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한 가운데 한층 자유분방한 에너지로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퍼플키스는 2021년 3월 미니 1집 'INTO VIOLET'을 발매하며 정식 데뷔했다.

그룹명인 '퍼플키스'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만들어진 보라색처럼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힙합 음악, 한국보다 미국서 더 들었다



▲ 스포티파이의 한국 힙합 프로젝트 'KROWN X HAN' 홍보 이미지. 사진=스포티파이

K팝과 더불어 K-힙합도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 힙합 음악을 국내보다 미국 등 해외에서 더 많이 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청취자가 한국 힙합을 들은 스트리밍 횟수가 2014년 이후 무려 95배(약 9천40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한국 힙합을 가장 많이 청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으로 조사됐다. 이어 멕시코,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일본, 캐나다 순이었다.

스포티파이는 이에 대해 "한국 힙합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소개했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3월부터 한국 힙합을 세계에 소개하는 'KROWN X HAN 2024'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숫자퍼즐 정답

5	3	9	7	4	6	2	8	1
6	1	7	5	8	2	9	4	3
8	4	2	3	9	1	6	5	7
7	8	4	1	5	9	3	6	2
9	5	3	2	6	7	4	1	8
1	2	6	8	3	4	7	9	5
2	6	5	9	1	3	8	7	4
3	9	1	4	7	8	5	2	6
4	7	8	6	2	5	1	3	9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소명(한국): _____

영관: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안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